KCC, 국내 최초 '숲으로' TV광고!

출시에 앞서 TV광고 선보여 기선제압 ... 제1페인트 메이커 부각도

KCC(대표 고주석)가 환경친화형 페인트인 「숲으로」를 4월 중순부터 TV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이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주로 인쇄매체를 통해 기업 이미지만을 소개했던 페인트기업들의 홍보전략과는 달리 KCC가 국내 최초로 특정 페인트제품을 TV를 통해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페인트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불붙기 시작했다.

KCC의 「숲으로」는 아파트, 고급빌라, 학교 등 고급스럽고 유해하지 않은 환경이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마감용으로 사용되며 중금속, 포르말린, 암모니아 등의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또 건조 도막에서 인체에 무해한 원적외선이 방출되며, 방균기능이 있어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KCC는 TV광고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기업이미지와 함께 「페인트=고려페인트」 기업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KCC는 국내 페인트 시장에서 2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해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페인트부문 매출액이 6020억원에 달할 만큼 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페인트 부문 역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KCC의 페인트 사업부가 건축자재 사업부에 비해 다소 인지도가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며 최근 경쟁 페인트기업들의 분발로 인해 KCC의 마케팅전략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KCC는 2003년부터 페인트사업 부문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환경친화형 페인트를 타겟으로 삼아 기업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CC의 환경친화형 제품으로는 DIY형 페인트인 '누구나 집단장', 세라믹분말 페인트인 '머드톤', 천연페인트 '푸르미' 등이 있으며 환경친화형 제품의 관심 증대로 국내 페인트기업들의 친환경 페인트 출시가 가속화되고 있다. <황현혜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30>